

# COME & SEE

##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빛나고 높은 보좌와(찬27/새27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문식 장로 2부/김성균 집사 3부/김도형 집사 4부/도함준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이 믿음 더욱 굳세라(Don Besig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누가복음(Luke) 9:37-45 .....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6:60-71
-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Come & See **미라클(8)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니?**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23) 이 말씀은 어렵도다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저 장미꽃 위에 이슬(찬499/새442장), 무엇이 변치 않아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사명자가 전문가를 이깁니다

Missionaries Win over Mercenarie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벤처기업 투자자 클라이너 퍼킨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명자가 전문가를 이긴다" 챗GPT AI의 창시자, 샘 올트만이 Meta가 공격적으로 자사의 AI연구원을 영입해 가자, 이 말을 인용하여 자사 방언에 나서면서 유명한 어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돈을 받고 돈의 가치 만큼 일하는 '용병'과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 선교사처럼 돈의 대가가 없어도 부르신 이의 사명 때문에 자원봉사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용병은 보상이 충분할 때만 남아 있지만, 사명자는 어려움과 손해가 와도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자가 용병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목적과 소명이 9-to-5 시간을 뛰어 넘는다면,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비난, 고난이 와도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의 이익만 좇는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곧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교사와 부모,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많은 리더들은 단지 성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용병이 아니라, 사명자가 더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은 비록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명자들입니다. 월급 많이 받는 전문가가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름 받은 사명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간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계산하고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일이라면 낮에도 사람을 써서 자기자리를 맡기고 교회로 달려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사명자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대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명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을 얼마나 얻을 것인가보다, 왜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결국 오래 남는 삶은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목적에 자신을 드린 삶입니다.

It is said that venture capitalist Kleiner Perkins once said, "Missionaries win over mercenaries." This phrase became famous when Sam Altman, the creator of ChatGPT AI, quoted it in self-defense after Meta aggressively recruited AI researchers from his own company.

The world highly values people who are capable and quick at making calculations. Those who move in pursuit of greater profits and better conditions are called successful. However, over time, the people who move hearts and change history are not "mercenaries"—experts who work solely for money and only to the value of that money—but "missionaries" who volunteer out of a sense of calling, even without financial reward. Mercenaries only stay when the compensation is sufficient, but missionaries guard their posts even when faced with hardship and loss. A person who works only as much as they are paid is a mercenary. However, if the purpose and destiny of your work transcend a 9-to-5 schedule, you are a missionary.

People with a mission do not give up easily. Even when failure, criticism, and hardship come, they know exactly why they are doing this work. On the other hand, those who only chase their own self-interest quickly change direction when circumstances become unfavorable. That is why true change always happens through people with a mission. Teachers, parents, pastors, missionaries, and many leaders who change the world do not live merely for success. They are individuals who hold onto a value greater than themselves.

The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needs missionaries, not mercenaries. Although pastors receive an honorarium from the church, fundamentally they are people with a mission. It is not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the church is led not by highly paid experts, but by called missionaries. They are not those who calculate and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s, but those who will hire someone else to cover their own work just so they can run to the church when there is church work to be done.

Jesus is the ultimate model of a missionary. Jesus did not come to receive power and hospitality; He came to save lost souls. Jesus did not use people; instead, He gave Himself up. The cross was the pinnacle of that mission. Today, rather than asking what or how much we can gain, we must first ask why we must live. In the end, a long-lasting life is not a life of having a lot, but a life offered to a meaningful purpose.

주일설교시리즈

COME & SEE

# 미라클 (8)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니?

(눅 9:37-45)

1. 라파엘(Raphael,1483-1520)의 '변화산' 그림을 감상해 봅시다.
2. 천상과 같은 변화산 위와 달리 변화산 아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37-40절)



적용하기



3.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도움을 청하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상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어둠의 현상들이 나의 '외아들 현상'이 아닌지, 그리고 설교 중 등장한 [이외치외]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38-39절, 참고/막 9:22)
4. 귀신을 쫓아 내신 후 주님이 바로 하신 말씀과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나눠 보십시오.(44-45절)
5.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외아들' 문제를 접근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참고 구절을 같이 읽고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참고/눅 9:23, 요 12:24)

■ 적용찬양: 저 장미꽃 위에 이슬(찬499/새442장), 무엇이 번치 않아

사역 소개  
입양아/포스터케어

# 하나님 앞 경건이란



입양아/포스터케어 사역팀에서 진행하는 Let's Be Family 사역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토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한국의 야나(YANA: You Are Not Alone)와 협력하여 베델교회 여름 VBS 기간에 맞추어 한국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을 초대하여 우리 교회 가정과 일대일로 연결하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온전한 가정에서 지내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해에는 6월 16일(화)부터 6월 20일(토)까지 'Emerald Crossing'이라는 주제와 시편 23편 말씀으로 VBS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시설에서 자라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초대함으로 이번 6월 Let's Be Family 사역을 통해 보육원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성도님들께서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

로 인도하시는도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이들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헌신과 후원을 자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Let's Be Family 사역에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13일(토)부터 6월 21일(주일)까지 홈스테이 제공(경비, 식사 및 라이드)으로 섬기시거나, 물질 기부(아이들 여행 경비)와 재능 기부(LAX 픽업 및 드롭오프, 일일 단체여행, 사진 촬영)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함께 뜻깊은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규 집사

■연락처: 박성규 집사 (714)423-8607  
jupak3@gmail.com

사역 소개  
미디어-사진

# 하나님의 영광을 사진으로

사진사역은 교회 안팎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예배, 사역, 행사, 선교, 봉사활동 등 전반적으로 은혜와 수고의 감격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으로 빛이 어두움을 이기게 창조되었듯, 사진은 어두움 속에서는 전혀 그 피사체를 담아낼 수 없지만, 아주 조그마한 촛불 정도의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받아 사진에 형상을 담아 영원히 남길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천 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는 말처럼, 사진이 보여주는 효과는 백문이 불여일견일 것입니다.

요즈음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어느 누구나 사진을 찍는 시대가 왔지만, 베델 사진사역은 카메라에 셔터를 누르기 전에 먼저 주님께 향유욕함을 드리는 마음으로 빛, 사물, 색상, 구도를 생각하고 찍은 뒤에도 보정 작업을 거치고 선별하며 마지막 QA 과정을 거쳐 베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사이트로 옮기게 됩니다. 주일과 주중

예배와 찬양, 열세, OICOS & OICOF, 헬시바 예배와 기도모임, 세례 및 입교식, 목장과 식당 사역, 의료사역, VBS, Musical Performance, 베델 캠퍼스에서 홍보하며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Cafe, 셀모임, QTIN, 기도의 현장, 새가족 방문 및 바나바 사역, MIT 모임, MOD, 주일학교 외에도 가정에서 모이는 셀심방, 생일과 잔례식 등의 모든 사진사역은 베델 사진사역 사이트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진사역은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고, 특히 올해는 베델의 50주년에 맞추어 열리는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와 2년마다 열리는 GMMA 컨퍼런스가 있으며, 특히 내년 4월에 튀르키예에서 열릴 B2N(Blessing to the Nations) 행사를 맞이하여 사진사역에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사진에 열정과 관심이 있거나 경험자로서 뜻깊은 사역에 헌신하시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규양 장로

■연락처: 차규양 장로 (562)355-1268



Come&See 50 특집 5

베델의 여정

#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991년 5월 둘째 주일, 처음 예배에 참석한 날은 잊을 수 없는 귀한 기억이며 추억입니다. 역동적인 예배 분위기와 가슴 깊이 전해지는 말씀에 '몇 주일만 더 다녀보고...' 하던 마음이 이곳에 신앙의 닳을 내리기로 결단하게 되었으며, 팍팍하고 힘든 이민 생활에 활력소가 되었고, 매주 몰려드는 교우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여러 사역에 동참하고 봉사하며 교회는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본당은 2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 날마다 늘어나는 성도들로 인해 예배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책을 내었을 때, 91년 여름 바로 옆의 미국인 교회가(당시 열반인 워싱턴센터로 다양한 나라의 교회가 모여 있었음) 이사하

면서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게 되어 본당 건물을 증축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 아래 부흥의 발판을 이루게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1996년 교회는 작은 일로 빛어진 민망하고 밤잠을 설치게 했던 아픔과 혼란이 있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었고, 안정을 찾은 교회는 새로운 교법을 재정비하여 활발한 선교와 사역으로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선교적 사명감으로 복한 선교의 발판을 이루게 되어 베델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향해 비전센터를 2001년 9월 입당한 데 이어, 2010년에는 협소한 본당까지 건축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였고, 23년을 헌신한 손목사님은 2013년 12월 모세와 같이 은퇴

하셨으며, 뒤이어 4대 김한요 목사님이 여호수아같이 부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러브레터 같은 명설교 말씀으로 지금껏 베델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셀목자로, 장로로 즐겁고 기쁜 일도, 동역자들을 잃은 슬픔도 많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늘 우리와 함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셨음을 간증하며 확신합니다. 교회는 정말 모두의 꿈과 추억과 시간의 순간들이 모여 기뻐 받으시는 곳임을,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 베델교회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간 위에 있지만 좋은 기억과 추억이 더해져 새로운 희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숙하고 행복한 베델인이 됩시다.

김귀성 장로

부설 사역 한국학교

# 아리랑에 복음을 실어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 3세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정답이 이번 합창 경연대회에서 아리랑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아리랑에는 민족의 한(恨)과 슬픔이 있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흥겨운 장단에 실어 웃음과 해학으로 극복하려는 정서가 있습니다. 슬픔을 흥으로 승화하는 낙천성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정서를 말로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눈빛과 몸짓, 마음을 느끼고 교감하며 배워 나갑니다. 전통음악 교유의 떠는 소리와 꺾는 소리, 신명 나는 어깨춤을 통해 한국인의 '한'과 '흥'을 노래와 퍼포먼스로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당일까지 고민하며 완성도를 높였고, 모두가 큰 성취감을 느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회를 마치는 시점과 맞물려 교회에서는 디아스포라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었고, 감사하게

도 마지막 날 집회에서 선교사님들과 이민교회 목회자분들을 모시고 아리랑을 공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타국에서 외롭게 헌신하시던 그분들에게 아리랑은 따뜻한 위로와 눈물의 감동을 선물해 드리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공연하며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랜 시간 하늘나라의 시민권만을 품고 살아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임을 깊이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민족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을 재현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합창대회 곡을 아리랑으로 선택하고 디렉팅하면서, 아리랑의 정서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때로는 근심과 절망

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참 주인 되시고 빛이 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소망과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아리랑에 한(恨)과 흥(興)이 공존한다면, 복음에는 절망과 구원의 소망이 공존합니다. 노래로 연결한다면 '아리랑'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이 아름답게 오버랩됩니다. 이번 합창대회와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 아리랑에 복음을 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섬세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지은 권사



교회학교  
जूबिल리 페스티벌

# 함께 꿈꾸는 희년의 기쁨

얼마 전 디아스포라 컨퍼런스를 맞아 주빌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초대하여, 즐거운 놀거리와 풍성한 먹거리가 가득한 기쁨의 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하나둘씩 페스티벌로 모여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 따뜻해졌고,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봉사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바운스 하우스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었고, 풍선 아트,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 포토부스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펀드레이징을 통해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



었는데, 특별히 고등학생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은 예배였습니다. 아이들은 '미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한 시기에 선교에 대해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함께한 이 시기에 주빌리 페스티벌을 열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 주시고, 선교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반인 베델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선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을 수 있어 더욱 큰 은

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가영 전도사

희년 50주년 Jubilee Festival은 따뜻한 감사와 기쁨이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은 새 성도로서 낯설지만 진심 어린 환대 속에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고, 공동체의 온기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시선에서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 속에서 사랑과 소망이 자연스럽게 흘렀고, 앞으로의 발걸음에도 밝은 기대가 더해지고 함께 꿈꾸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궁유주 집사

## 2026 봄학기 베델제자훈련 수료자

양육반/ 제자반/ 말씀플러스/  
BAM/ 전도폭발

베델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은혜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배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이어져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6 봄학기 베델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 제자훈련 수료식 일시/장소: 5월 31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 양육반(39명): 구혜림, 김문정, 김선애, 김신영, 김예완, 김유태, 김은진, 김민숙, 김준희, 김현승, 김형섭, 김형수, 남희자, 문보연, 박은영, 박혜성, 박효근, 변성주, 설미영, 손미령, 이경희, 이대영, 이영석, 이찬미, 이태우, 이혜원, 이호성, 전해실, 정수장, 정용철, 조성훈, 조세훈, 조학성, 조한나, 주아름, 최경, 최혜경, 한동석, 한승엽
- 영어양육반(4명): David Kim, Mitch We, Jaehyuk Chung, Tina Han
- 제자반(47명): 권 경, 권혜진, 김경희, 김도윤, 김소영, 김영민, 김은영, 김은정, 김종철, 김태훈, 김호진, 김희윤, 마혜원, 박병임, 박성화, 박예린, 박윤희, 박정민, 박철웅, 백선정, 백승현, 서혜원, 안지영, 위우정, 이상훈, 이소영, 이승현, 이은지, 임세원, 장석영, 전인경, 정로즈마리, 조경호, 조광중, 조한나, 주용중, 차현경, 채윤경, 최두현, 최영지, 최의영, 최준영, 최혁성, 한보경, 홍성용, 황대경, 황자영, 황지원
- 말씀플러스(5명): 강안젤라, 정민주, 김켈리, 손주혜, 오혜진
- BAM(20명): (1단계: 12명) 강덕규, 강지원, 김동호, 김종민, 김태영, 손미령, 안철완, 장대령, 장인호, 정대현, 천 브라이언, 최태규 (2단계: 2명) 김성귀, 김지광 (3단계: 6명) 김두환, 김주혁, 박세환, 장지봉, 전정화, 정성일
- 전도폭발(56명): (1단계: 22명) 김나영, 김도형, 김문정, 김영광, 김영아, 김정범, 김정호, 김지연, 민수연, 박정원, 배윤경, 이성희, 이정섭, 이지영, 임세진, 장윤희, 전우양, 주은미, 최서영, 최연우, 최효선, 허주은 (2단계: 15명) 계연정, 김대웅, 김복경, 박정원, 박준섭, 배주희, 안경수, 이경은, 이윤옥, 장현복, 정보미, 정성은, 정웅태, 주아름, 최소진 (3단계: 5명) 김민숙, 김은선, 안정선, 지효정, 최정이 (4단계: 8명) 구윤모, 김경하, 박학진, 반주현, 변진, 이 크리스틴, 이자인, 차원재 (5단계: 6명) 권미경, 김영현, 양정규, 유선령, 윤태경, 이지애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수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수채플: 공병주 목사
- 예수채플: 이형석 목사
- 예수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수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자녀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학생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매년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 많은 장학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장학 특별 한금'을 통해 장학 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으며, 특별히 기탁받은 유명 장학금은 선교사 자녀를 위하여, 아훼 장학금은 목회자 자녀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써밋 장학금, 이레 장학금, 나팔 장학금 등은 학생의 상황과 전공에 따라 별도로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크리스천의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신청 기간: 6월 1일(주일)-30일(월)
- ▶ 신청 대상: - 베델교회 교인이거나 교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12학년 졸업 예정 또는 풀타임 대학생  
- 기독교 사역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자녀  
- 고등학교 GPA 3.3 이상, 공인된 대학 2026년 가을 입학 예정 고등학생  
- 공인된 미국대학 재학 중 GPA 3.0 이상, 지난 학기 풀타임 대학생(Undergraduate)
- ▶ 선정 기준: 신청서, 학교 성적, 에세이, 추천서 등을 검토해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격과 섬김의 자세를 기준으로 장학 소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로 선정됩니다.
- ▶ 선정 결과 발표: 7월 말 예정
- ▶ 신청 방법: 홈페이지 scholarship.bkc.org
- ▶ 문의: 김종학집사 (949)285-9408, scholarship@bkc.org, 교회 사무실 (949)854-401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6월)	6/7: ①부-김문경	②부-김백열	③부-김근수	④부-류다빈
	6/14: ①부-김병민	②부-김병찬	③부-김웅진	④부-전하은
	6/21: ①부-김정운	②부-김세진	③부-김인규	④부-안지우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6월)	6/6: 손수국	6/13: 현승원	6/20: 오성남	6/27: 윤현돈
강단꽃(5,6월)	5/31: 선상국, 왕동원, 이인철	6/7: 김종현, 박운유	6/14: 장다혜	6/21: 이지애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차계환(한 의사), 간호사-윤성자      다음주 | 의사-이석완(심장내과), 간호사-강지원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 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석(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제 13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6년 베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6월 1일(월)부터 교회 홈페이지나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하실 수 있습니다. (7면 참고) 신청 기간: 6월 1일(월)-30일(화) 신청: 장학생 모집 홈페이지 (scholarship.bkc.org)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scholarship@bkc.org,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상반기 셀 종강 2026년 상반기 셀 모임을 통해 나눔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셀 목자를 축복합니다. 상반기 셀 모임은 5월 31일(주일)이 마지막 모임입니다.

◆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오늘 3부 예배 중에 지난 4-12개월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은 제자반, 양육반, 말씀플러스, 전도폭발, BAM 훈련 과정의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예배 후에는 기념 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니, 수료자를 함께 축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6면하 참고)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화평 & 은유 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6월 9일(화)-12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 OICOS 예배 특송: 화평 & 은유 목장 (박성권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6월 13일(토) 오전 6시, 본당

◆ Promise of Purity 예비 등록 우리 자녀들은 비성경적인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가정과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POP를 통해 자녀들과 부모님이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결의 아름다움을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대상/예비 등록 기간: 현재 4-6학년, 5월 31일(주일)-6월 30일(화) 등록/문의: QR 코드, 위우정 집사 (714)423-4813



◆ B2N 2027 연합기도회 초대 튀르키예에서 2027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일시: 2027년 4월 22일(목)-26일(월) 장소: 튀르키예 안탈리아 /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등록비: 1인당 \$1,000 + 국제선 항공권 or 여행패키지 등록 마감: 5월 31일(주일)까지 문의: 코트야드 부스, 이충경 목사 (949)537-6968, 황세현 장로 (949)648-1907

◆ 소망부 VBS 등록 및 봉사자 모집 2026 소망부 VBS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 신청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7월 21일(화)-24일(금) 오전 9시-오후 3시 신청/문의: QR 코드,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등록)

(봉사자)

◆ 초등부 여름 수련회 등록 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Identity: In Christ'라는 주제로 7월 31일(금)-8월 1일(토)에 열립니다. 등록은 QR 코드나 PTA 카톡으로 나간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등록비: 현재 4학년-5학년, \$120 등록/문의: QR 코드, 김정범 집사 (714) 623-0919



◆ 오늘부터 가족(Let's Be Family) 홈스테이 섬김 '야나(YANA)'와 협력하여 한국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우리 교회 가정을 연결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보호자 남성 한 분을 홈스테이로 섬겨주실 가정을 찾습니다. (4면상 참고) 섬김 기간/방법: 6월 13일(토)-21일(주일), 홈스테이 문의: 박성규 집사 (714)423-8607

◆ 이석배 집사 선교사 파송 예배 이번 돌아오는 6월 6일(토) 험시바 교회에 이석배 집사의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캄퐁츠낭의 The Pathway International School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95%가 불교권인 민족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여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양육을 감당할 귀한 사역에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본어 예배 시간/장소 변경 6월 첫째 주일(7일)부터 일본어 예배 시간과 장소가 기존 오후 1시 15분/임마누엘채플에서 오전 9시/샬롬채플로 변경됩니다. 문의: 김민수 집사 (949)378-0892

◆ 큐티인 6월호 판매 QTin 6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위로해 주세요 故 조병태 집사님(조화자 권사의 남편)께서 5월 17일(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Includes details for AWANA, Sparks, Truth&Training, and church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ERMON SERIES

COME & SEE  
MIRACLE (8)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 How much longer do I have to endure this?

(Luke 9:37-45)

1. Let's appreciate the painting 'The Transfiguration' by Raphael (1483-1520).
2. Unlike the heavenly scene atop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what was happening at the bottom of the mountain? (vv. 37-40)
3. What does the father, who is asking for help because his son is demon-possessed, say about what kind of son he is? Reflecting on the condition of the demon-possessed son, let us share whether the darkness we face might also be our own 'only-son phenomenon,' and discuss what the meaning of [l-oe-chi-oe] (healing/treating the outside with the outside) mentioned during the sermon is. (vv. 38-39, Ref: Mk 9:22)
4. Please share how the words the Lord spoke immediately after driving out the demon correlate with the disciples' lack of faith. (vv. 44-45)
5. Reflecting once more in our hearts on how Jesus' cross resolves our problems, and hopefully this serves as an opportunity to approach our own 'only-son' issues. Let us read the following reference verses together and share the grace received today. (Ref: Lk 9:23, Jo 12:24)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